인사말

종정예하의 정진과 지혜의 덕화를 존경하며, 원로의장스님을 비롯한 원로스님들께서 전해주시는 고견과 격려를 항상 공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로스님들께서 이루신 공덕을 토대로 종단 운영에 면밀함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종단은 중앙과 지방이 효율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종무행정의 균형 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사찰들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야 하며 교구가 중심이 되어 종무행정을 책임있게 실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조계사를 시민과 함께 하는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일은 종도와 불자의 오랜 염원이었기에,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한 걸음씩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의 조화로움과 삶의 지혜로움이 공존하는 이 시대 불교의 상징으로서 조계사가 새롭게 태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행자들이 안정적으로 수행과 전법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간의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승려복지를 확장해 나가는 다양한 노력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승가 고유의 정신을 계승하고 현대사회에 적합하게 제도를 정립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부대중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열린 공간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대중공사의 전통을 슬기롭게 계승하여, 가까이의 현안에서 멀리는 우리종단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기까지 사부대중의 지혜와 뜻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들이 이제는 실질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 염원들이 실현되어 가는 만큼 앞으로도 종단 내부의 분위기를 일신하면 서, 불교가 사회 현실을 바로 보고 우리의 이웃과 중생의 삶을 함께 보 등을 수 있도록 다양한 종무행정을 개선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원로스님의 고견과 격려를 소중히 경청하고 소임자들은 최 선의 노력으로 매진하겠습니다. 원로스님의 근념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청안을 기원합니다.

> 불기2558년 12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